

교회의 종소리- 기도하라! (MCF선배의 소중한 조언)

예) 육군소장, 전 MSO위원장 윤여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초급장교(소위) 시절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땡그렁” 들려오는 것 아닌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종소리였다.

그 날은 주일(일요일) 이었다.

부대 인근에 방을 얻어 지내던 나에게 부대인근 교회의 종소리가 그날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이다.(70년대 이전까지는 교회예배 시간을 종소리로 알렸음)

평소에도 주일날이면 꼭 들리던 종소리가 그날 나의 “신앙의 잠”을 깨는 소리로 더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신 덕택으로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고 주일성수는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 입대라는 나의 인생의 커다란 변화는 지금까지의 나의 일상을 마구 흔들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우리 군은 주일에도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특히 나 같은 초임장교에게는 주일 근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바쁜 근무를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잃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나에게 우리 주님은 교회의 종소리를 통해서 나의 잠자던 영혼을 깨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는 분위기에서 나만이 주일이니 교회에 가겠다는 말을 지휘관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가 나에게서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담만 가지고 고민하며 몇 달을 지내던 차에 부대의 OCU (현재의 MCF)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

평소에 잘 나가지 못하던 OCU모임이지만 이날은 꼭 참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에 나가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주일 성수 관련 신앙 상담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부지런히 업무를 마치고 모임 장소에 나가보니 부대 선배들이 나와 있었다.

간단히 기도회를 마치고 개별적인 신앙 상담 시간이 마련되었다.

평소 신앙적으로 존경하던 선배께 나의 고민을 어렵게 털어 놓았다.

그 선배는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부대 OCU가 함께 기도할 테니 본인 스스로도 더 “기도하라”고 했다.

우선 주일에는 바쁜 근무로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될지라도 어디에서든 짧은

시간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진지하게 조언해주셨다.
교회의 종소리는 “기도하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교회의 종소리는 교회에 오라는 소리일수도 있으나 “기도하라”는 소리라는 선배님의
조언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될지라도 종소리가 들리면 훈련장에서 또는
공사장에서 잠간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주일 날 훈련장 한쪽에서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는게 아닌가!
기도를 급히 마무리하고 뒤를 돌아보니 중대장님이 웃으면서 자네 기독교 신자인가?
하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이 주일이라서 교회는 못가지만 잠간 기도하는 중 이라고
평소 말하지 못하던 말을 솔직하게 말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중대장님은 주일에는 나에게 1시간정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초급장교시절의 신앙의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어디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먼저 기도하라”던 그 신앙의 선배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